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2월 13일 월요일 (음 1월 17일) 제17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 성공 열쇠 '내부개발 가속화'

새만금의 성공 열쇠는 내부개발 가속화에 있다며 국정과제로 채택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오후 첫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새만금 정책포럼은 그동안 각계의 도와 주요 인사로 구성된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해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자문, 지원해 왔다.

이번 포럼은 서울행정학회에서 주최하는 동계학술대회에 특별 세션으로 참여해 새만금사업에 있어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특히, 저성장·고실업이라는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 갈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이 때 새만금사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됐다.

새만금사업은 2010년 새만금방조제 개통이후 내부간선도로 구축과 노출부지 확대에 따라 본격적 내부개발 여건이 갖춰진 국책사업으로 비교적 빠

도, 새만금 정책포럼

용지 매립비용 집중투자

국가 주도로 속도 올려야

큰 기간 내 대표적 성공사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 및 민간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공항, 신항만 등 국제 물류인프라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광활한 배후부지를 연계·발전시키려면 단순 경기부양을 넘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새만금사업의 지지부진한 속도를 지적하면서, 새만금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기능하려면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인프라투자에 있어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15%인데 비해 새만금사업은 50%이상으로 민간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인프라는 공공이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저성장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가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저성장 골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만금사업과 같이 본격적인 내부개발 단계에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의 토대가 되는 땅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관건인데, 향후 4~5년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되는 내부용지 매립비용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내부개발 속도를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연구원 김재구 연구위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멈출 수 없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나 행복도시의 사례와 같

이 국가의 추진의지가 가장 절실하다고 하면서 현재 새만금사업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사업을 챙길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내에 새만금 수석비서관(또는 비서관) 설치하고, 현재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하고 있는 국조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을 새만금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임단장으로 독립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포럼에 참석한 도와 주요인사들은 이제라도 국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새만금 정책포럼 남궁근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이르면 4월말~5월초 '벚꽃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새만금사업을 포함시키므로써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社 告

제3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7년 2월 16일(목)~2월 17일(금)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수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전주매일신문
-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 전북스키협회
- ▲후원: 전북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 ▲참가지역: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 ▲접수기간: 2017년 2월 15일까지
- ▲참가접수: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홈페이지(www.jjmaeil.com)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3면 -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전북 문 찾을 수 있도록 정책 수립할 것"

특검,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소환"

전국 곳곳 대보름 촛불... 거센 '기각 여론전'에 맞대응

정월대보름이자 주말인 지난 11일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2월 탄핵 촛불이 켜졌다.

이날 전국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박 대통령 2월 탄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특히 한동안 주춤했던 촛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2월 중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분노와 위기감이 커진 게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0분 기준 주말 15차 촛불집회에 주최측 추산 80여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75만명이 운집했다. 세종 150명, 대전 1500명, 대구 3500명, 광주 1만5000명, 부산 2만2000명, 울산 4000명, 전주 1000명 등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0만6000명이 운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체감온도 영하 6도의 날씨에도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면서 "박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과 노골적 현재 압박으로 탄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긴장

2월 탄핵' 염원 촛불집회

국민 80만6000여명 운집

박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대면조사 거부에 참가자들

지난주보다 맹추위속 크게 늘어

감이 높아지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거부 등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면서 참가자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월중 탄핵, 특검 연장' 다시 타오르는 전주 촛불

전주에서도 초기 탄핵 결정과 특검 연장을 염원하는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특히 2월 안에 탄핵 심판이 내려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시내 중심가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11일 오후 5시 전주 관동로 사거리에서 열린 제13차 전북도민총궐기 행사는 주최측 추산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700여명이 참석한 지난

주보다 40% 이상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 등의 영향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2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예상이 빚나갈 상황에 처하자 성난 민심은 다시 촛불을 들고 모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2월 안에 탄핵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또 사실상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며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방용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발언을 통해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1명만 반대하거나 기권해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우리 국민을 믿는다. 오늘보다 다음주, 또 그 다음 주 더 많은 촛불이 모일 때 우리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월 탄핵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 200만, 300만이 모이면 2월 탄핵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에 하나 2월 탄핵이 안 된다 할지라도 3월에 바로 탄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촛불이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발언에 나선 또 다른 시민은 솔로몬의 판결을 예로 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국모라면 하나는 촛불, 또 하나는 태극기로 나라를 두 동강 내서 싸우게 해야 되겠느냐"며 "이런 꼬라지를 보면서 (탄핵심판 지연 및 특검수사 거부 등) 이리저리 팔고 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찬 바닥에 앉혀 놓고 고생을 시켜야 하나? 이게 엄마로서 할 일인가"고 꼬집었다.

그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면 차라리 다른 엄마한테 주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게 진짜 엄마"라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엄마는 그런 엄마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주 송광사 측은 집회에 참석한 시민을 위해 떡국을 무료로 제공했고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는 화폭을, 원불교 측은 생강차를 비롯한 각종 차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차 없는 거리'를 거쳐 오거리 광장을 지나 풍남문 광장에 이르는 길을 행진한 뒤 해산했다. /김민근 기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지난 11일 오후 '전북도민 제13차 총궐기'에 참석한 한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통의정 열린의회

시민과 함께가는 여민동락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與民同樂)

제218회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

건강하고 즐거운 정읍이 되세요